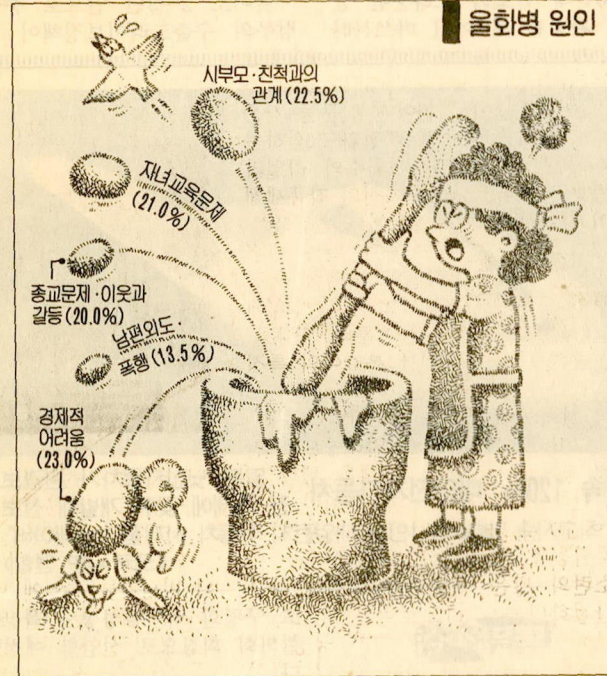


■ 울화병 원인



〈자료 = 한국방송공사, 그림 = 김영훈 기자〉

주부 절반이상이 울화병으로 시달려

우리나라 주부 2명 중 1명이 울화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KBS 제2라디오 <안녕하세요 황인용·서승현입니다> 제작팀이 지난 6~8일 전국 6대 도시 주부 8백65명을 대상으로 주부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2.6%가 자주 또는 가끔 울화병에 시달린다고 답했다. 울화병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(23.0%), 시부모·친척과의 관계(22.5%), 자녀교육 문제(21.0%), 종교문제, 이웃집과의 갈등(20.0%), 남편의 외도나 폭행(13.5%) 등이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